

2018년 10월 15일,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복지회관, 이효순 조사.

이탁준(여, 1937년생, 제주시 해안동)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서 태어나서 육지에 7년 정도 살다가 결혼 후 해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집을 떠난 남편을 찾으러 간 큰부인에게 작은부인은 목욕을 하자고 하면서 큰부인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집으로 온 작은부인은 일곱 아들들을 모두 죽이려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점을 쳐 오라 하였다. 점쟁이에게 남선비가 오면 ‘일곱 형제의 간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막내아들이 형들의 간을 갖고 오겠다고 하였다. 마침 산돼지 새끼의 간을 가져 갔는데 작은부인이 먹지는 않고 이불 밑에 숨겨 두는 것을 보고 이를 형들에게 알렸다. 작은부인은 변소에서 죽고, 큰부인은 조왕, 남선비는 문전에 신이 되었다.

[조사자] 남선비 말 잘 골아줍서.

[제보자] 아부지 찾아강 오肯 나가난. 이제 어디 마을에 딴 마을에 가난. 이제 거기 사람 하나 봐지난

“아멩아멩한 사람 봐집디가?”

허난

“저기 각시 얻엉 살았우다.”

경허난 각시 얻은디 강 보난 하르방 잇이난. 그 씨앗은 어떻 몹씬디산디 큰어
멍신디

“아이고, 성님 오젠 허난 수고햇수다. 요레 그룹서. 물에 가그네 시원이 흥건
이 물이나 놔 안네게.”

큰어멍 오꽃 퍼뜩 곧이 들어네 그디 앓양 엎더지난 소곱에 차락 밀어부난 죽
어불언. 큰어멍 죽어 부난 하르방허고 할망은 큰집이 온 거라. 하르방은 맨날 벌
레 가肯 허영 족은아들이 어디 강 오당 벌엉 완에 할망은 막 아프덴. 아프지도
안 헌디 막 아프덴 허영 누웠당 점쟁이신디 강 우리 하르방 이디 보내건 아들
일곱 성제 간 내엉 먹으면 좋덴 골아도렌 허여 된

“아이고, 나 죽어지켜. 아이고, 나 죽어지켜.”

할망 엄살허난 하르방이 완

“아이고, 어떻 영 아팠이?”

허난

“하이고, 저 어디 강 들으나네 아들 일곱 성제 간 냉 먹으면 좋넨 헤도 어떻 그 노릇을 헤저.”

하르방은 강 들으난 또 그 여편 곤듯이 골으난 와그네 칼을 슬강슬강 아들 일곱 성제 간 냉 주젠 칼을 슬렁슬렁 골앓이난 족은아들이 어디 강 오단

“아버지 무사 칼을 영 골앓우가?”

영 허나네

“저 느네 족은어멍 아팡 어디 강 들으나네 일곱 성제 간 냉 먹으면 좋肯 허영 영 헤저.”

“아이고, 아버지. 나 몬딱 성님들 간 내당 안네쿠다.”

허영 집이서 올라가당 보난 산돼지 일곱 머리, 어미꺼정 여덟이 졸졸졸 내려왔 이난

“어머닐랑 씨 전종허곡 이 아기들이라그네 우리 형님들 살립서.”

허난 간 할 수 엇이 여섯 개만 허고 하나랑 난중에 잡아가켜 헷인디

“형들 간 다 내왓이난 아버지, 어머니한티 안넵서.”

허난 아방은 어멍 갖다 주난. 경혜동 이제 족은아들은 창문 고망 쪼끔 뜰랑 베 려보난 어멍이 먹는 척 마는 척. 사람 간이카부덴. 입바위에 피 불르는 등 마는 등 이불 알드레 묻으난

“아버지, 나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이불자리영 다 치와 둉 죽으쿠다.”

허난

“느 못힌다. 느 못힌다. 나가 허주.”

“아버지 허젠 허믄 가슴 아프고, 아기 여섯 성제 간 헌 걸 어떻 치우쿠가?”

활딱 놀려 들엉 이불 확 걷엉 보난 여섯 개 조물조물 시난. 이제 이 어멍을 죽 영 좋으카 살령 좋으카 허난 그냥 활딱 나와네 두들팡이 강 곱음 시늉 두들팡에 들어강 죽고.

[조사자] 통시에?

[제보자] 옛날에 그거 두들팡이렌 헤낫우다. 두들팡. 똥 누던 두들팡. 경허고 아버진 문 앞이 앓앙 야게 돌아정 죽고.

“성님들 죽엇이민 귀신으로 나오고, 살앗거랑 생인으로 이레 나옵서.”

허난 몬딱 담아전. 왈칵 허게 담아전. 허나네 그 아들 허는 말이.

“우리 어머니랑 돌아가셨거들랑 조왕으로 앓앙 조왕으로 본풀이 허영 얻어먹곡. 아버질랑 문전제 허영 얻어먹곡 협서.”

경햇덴.

- 핵심어: 족은아들(막내아들), 간, 성제(형제), 산돼지, 두들팡(디딜팡), 조왕신, 점쟁이, 성님(형님), 일곱 성제(일곱 형제), 아방(아버지), 어멍(어머니), 야게(목)